

현대중공업, 강관철탑 일본 첫 수출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국내 처음으로 일본에 송전선로용 강관 철탑을 수출한다. 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본부 철탑사업부문은 최근 일본 동경전력이 발주한 920톤 물량의 강관 철탑 10기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철탑은 일본의 대규모 송전선로의 가나가와선 건설에 투입되며 최종 납품은 내년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경전력의 철탑 입찰에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주)을 비롯, 토모네, 나스전기 등 9개 일본 제조업체가 참여했으며 가격과 기술력에 우위를 보인 현대중공업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동경전력은 지난 '96년 후지가와 송전선로 건설공사시 500톤 물량의 산간용 철탑 5기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구매한 적이 있으나 대규모 송전선로 공사에 소요되는 철탑을 해외에서 조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 표준광역 SCADA시스템 국산화 성공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산업자원부 지원 국책과제로 2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표준형 광역 전력 대형 스카다시스템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카다(SCADA/Supervisory Control & Data Acquisition)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집중원방 감시 제어시스템으로 통칭되며, 컴퓨터의 정보수집 - 처리 - 분석 및 제어기술과 통신기술이 통합된 첨단 시스템이다.

인트라넷망을 이용해 전력장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자동 분석함으로써 현장에 가지 않고도 작동 및 고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SCADA시스템은 차단기, 스위치류 등 전력 감시분야, 케이블, 광통신망, 자동화설비 등 통신망/제어설비관리분야, 펌프류, 밸브 등 오일/가스

설비분야, 전철, 항만, 항공 등 운송산업분야, 인버터 감시 및 제어 등 전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최근 가스폭발, 철도사고 등 빈발하는 대형사고 방지는 물론, 수질·대기오염 등 환경기준 강화,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형 SCADA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 대형 SCADA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이뤄지는 시장성이 좋은 분야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술상의 부족으로 50~60%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SCADA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관리기능, 화면표시기능, 데이터 수집 및 보고기능, 화면구성기능, 시스템분석기능, 시뮬레이션기능, 이중화(Dual)시스템, 데이터 기록

기능 등 기능이 다양해 외국 제품보다 우수하고 디자인도 세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SCADA시스템은 백업(back-up)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스템 운전상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규격 통신 프로토콜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도

높다.

현대중공업은 최첨단 SCADA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연간 15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SCADA시스템 시장에 적극 진출, 앞으로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765kV 극초고압 변압기 국내최초 개발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이 국내 최초로 개발·납품한 765kV급 변압기가 한전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6월 23일 역사적인 상용 운전에 돌입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납품한 극초고압변압기는 당진화력에서 발전하여 765kV로 격상된 대단위 전력을 수도권 및 전국 전력망을 통해 공급한다.

765kV급 극초고압변압기는 주변압기(204MVA) 4대와 연계변압기(370MVA) 4대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765kV급 극초압변압기를 제조할 수 있는 중전기업체는 세계적으로도 5~6개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765kV급 극초압변압기를 성공적으로 개발·납품해 국내 중전기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극초고압 765kV 변압기 개발을 위해 지난해 극초고압시험실에 대한 준공식을 가진 바 있으며, 지난 3년간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써 이번의 성공은 국내 중전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은 765kV 송전계통사업에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극초고압 중전기기 해외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LG산전, 중국에 국산 전력설비 대량 공급

LG산전(대표 : 손기락)이 최근 중국지역 3건의 전력기기 랜드마크(Landmark) 프로젝트에서 총 350만弗을 수주, LG산전 이미지를 제고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하고 있다.

LG산전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지상 51층, 지

하 4층 규모의 중국 동북 3성 최고층 빌딩인 대련 세계무역센터(Dalian World Trade Center)에 변압기와 수배전반을 공급기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중국 스촨성(四川省) 『몐양시(綿陽市) 신공항 프로젝트』를 수주, 고압배전반과 몰드변압기를

7월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또한, LG산전은 중국 지양수성(江蘇省) 『쉬쭈우발전소(徐州發電廠) 개조 프로젝트』에서 ABB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수배전반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다.

120만kW 규모의 쉬쭈우발전소는 중국 2대 발전소중 한 곳이며 전기업계 인사들의 견학지로 자주 이용되는 곳으로서, LG산전은 이번 수주로 LG산전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지역내 발전소 프로젝트를 처음

으로 수주함으로써 향후 중국지역내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산전은 향후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배전반, 변압기, 개폐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LG산전 대련법인을 거점으로 중국지역 공략을 가속화함으로써 올해 중국지역내 전력기기 및 시스템 분야 매출이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2천만弗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 스페인에 전자개폐기기류 5백만弗 공급계약 체결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스페인의 저압차단기분야 선진업체인 테라사키 에스파나(TERASAKI ESPANA)사와 3년간 5백만弗 상당의 전자개폐기기류(전자접촉기, 열동형 과부하계전기)를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 40억弗 규모의 유럽 저압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LG산전은 테라사키 에스파나사의 유럽시장 유통망을 활용하여 자사 개발 제품을 유럽시장에 대량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압차단기분야 선진업체인 테라사키 에스파나사는 개폐기기류 제품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양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LG산전은 이번 계약 체결로 유럽의 까다

로운 규제를 극복,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았으며, 그동안 아시아 및 남미시장에 한정되었던 거래선을 미국시장과 유럽시장까지 넓힘으로써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매출증대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LG산전은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거래선 다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한편, LG산전이 이번에 계약 체결한 전자개폐기기류는 전시리즈에 걸쳐 이미 CE(유럽품질규격) 마크와 UL(미국 품질규격) 규격을 획득하여 지난해 말 미국 벤쇼(BENSHAW)사와 1천2백만弗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 처음으로 10억弗 규모의 미국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주)효성, 8백kV급 가스절연기 상용화

효성(대표 : 이돈영)은 23일 세계 3번째로 개발

한 800kV 50kA 8000A 가스절연개폐기(GIS)를

화력발전소에 납품, 상용화 운전에 성공했다.

효성의 800kV GIS는 최신 기술인 2점절 차단 방식을 적용해 세계 최대 전력기기 제조업체인 ABB와 일본의 도시바가 개발한 4점절 차단방식보다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서 한 단계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측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한 것은 물론 그동안 ABB, 알스툼 등 선진국 기업들이 독점해온 해외 500kV급 변압기, GIS 등의 전력

기기 수주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23kV급에서 800kV급까지 모든 변압기와 GIS를 일괄 생산하는 세계적인 중전기 제조업체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전전압 격상 사업에 맞춰 지난 '92년부터 765KV 실증시험장용 변압기를 개발했고, '98년에는 800KV GIS, '99년에는 765KV 667MVA 변압기를 차례로 개발했다.

디이시스(주), 보호계전기 CE 마크 인증 획득

전력보호계전기 제조업체인 디이시스(주)(대표: 이창근)에서 금번 보호계전기 품목으로는 국내최초 해외 인증인 CE 마크를 획득하였다.

이는 그동안 해외 수출에 장애요인인 해외인증 CE 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업무를 추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증 획득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아 약 1년간의 제품 시험정밀검사 등을 거쳐 금번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CE 마크를 획득하게 되었다.

향후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Digital Type 보호계전기에는 CE 마크를 부착 출하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을 한 단계 올려 놓음으로써 국내시장의 수입 대체품의 수요확대 및 해외 수출시장의 신뢰성 확보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동사는 ISO 9001 인증 및 KS 제품 3 품목 및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인증으로 원자력 납품 자격 및 독일 선급협회로부터 선박용 계전기 GL 마크 획득 등으로 제품 품질에 신뢰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 받는 계기가 되었다.

성원전기공업(주), 수원공장 준공

국내 최대의 전기절연물 생산업체인 성원전기공업(주)(대표: 이경호)이 수원공장을 새로 마련했다.

성원전기공업은 제 1 용인공장, 제 2 구미공장에 이어 제 3 수원공장을 새로 준공함으로써 세계 5대

전기절연물업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에 위치한 수원공장은 총 1만평의 부지에 3,5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첨단 고속 코팅기등 자동화 생산설비가 속속 설치되고 있다.

현재 성원전기는 제 1 용인공장에서 생산하는 복합절연물이 해외 바이어의 주문과잉으로 수출물량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용인공장에서 생산중인 복합절연물과 특수용 점착 테이프의 생산량을 최대한 높이고 전기·전자용 특수점착 테이프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수원공장을 새로 마련했다.

수원공장은 올해 6월초부터 자동 컴퓨터 시스템의 고속 코팅기 등의 최신식 생산설비가 본격 가동하였으며, 용인공장보다 생산능력이 30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보고 있다.

성원전기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외산 전기절연물인 소선용 DGY, 전선용 차수테이프, PG밴딩테이프, 복합절연물 및 특수용 점착 테이

프를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절연물을 국산화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전선의 수분을 차단시키는 전선용 차단 테이프는 고압전동기 및 발전기의 절연용 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선용 DGY 절연자재와 광통신케이블용 절연자재로서 세계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성원전기는 고장력과 반 경화성에 Glass Yarn의 가열성 수지를 코팅한 PG밴딩 테이프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성원전기는 수원공장 준공을 계기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오던 외산전기절연물을 전부 국산화 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을 위해 올 연말까지 기술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다.

1977년 창립이래 24년간 국산전기절연물 개발을 위해 한 우물을 파온 성원전기는 세계적인 전기절연물업체인 이솔라, 이소볼타, 코제비에 이어 세계 5대 전기절연물 업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주), 대한제작소 광섬유 업체로 전환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은 최근 광통신사업의 대폭적인 확장과 정보통신(IT) 부문에 인프라를 구축키 위해 계열사인 (주)대한제작소를 기계·전선드럼 설비 중심에서 광섬유(Fiber) 전문생산업체로 전환, 육성시키기로 했다.

대한전선측은 올해 중으로 계열기업 가운데 코스닥 등록업체인 대한제작소에 200만f/km 규모의 광섬유 제조설비를 도입, 연간 생산능력 300만 f/km 규모로 확대하여 폭증하고 있는 광섬유 수

요에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 관련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통신케이블의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향후 500만f/km까지 광섬유 설비를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시사했다.

대한제작소는 이와 관련, 이사회를 열고 신규사업추진에 걸맞게 상호를 (주)유평토매직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기계설비에서 광섬유 제조·판매로 전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토매직은 앞으로 첨단 고부가가치 사업인 광통신분야로 사업전환과 함께 광섬유와

광케이블 생산을 분리, 전문화 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LG전선, 광통신용 모듈 국산화 성공

LG전선(대표 : 권문구)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통신용 모듈인 622Mbps급 '트랜시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트랜시버는 광통신용 송신모듈과 수신모듈을 일체화한 제품으로 기존 분리형 모듈의 제조가격을 낮추고 컴팩트화 한게 특징이다.

지난 '99년 155Mbps급 트랜시버를 상용화한데 이어 개발된 이 제품은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을 주도하게 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기식 전송계위(SDH)와 북미의 SONET 규격도 만족시키는 국제 표준제품으로서 SDH 및 SONET 방식을 따르는 모든 광전송장비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LG전선의 이같은 개발은 현재 루슨트, HP, 씨멘스, 알카텔 등 세계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광모듈 시장에서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LG전선은 국내시장에서 622Mbps의 상용화와는 별도로 세계 광시장의 50%에 육박하는 2.5Gbps급 광모듈과 차세대 광모듈로 불리는 SFF(Small Form Factor)의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내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광소자 국산화 기반구축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LG전선, 英文 구매 홈페이지 오픈

LG전선은 완전한 웹 기반의 구매시스템인 'IPN (Internet Purchasing Network) 영문판' 구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LG전선의 영문판 IPN 영문판은 국내 기업들의 기존 영문 구매사이트처럼 국문을 단순히 영문으로 옮겨놓은 차원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콘텐츠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IPN 영문판은 기존 국문 IPN의 '실시간 정보통지 기능' 및 '사이버 입찰기능'은 물론 구매(수입)

업무에 필요한 신용장(L/C) 오픈, 외화송금등을 가능케 하는 각종 기능과 환율 프로그램 등 수입에 따르는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국문과는 전혀 다른 홈페이지다.

LG전선은 앞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홈페이지와 판매사이트의 통합 사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연말까지 IPN도 통합시켜 명실상부한 전선업계 보탈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국전기공업(주), 발전기·몰드변압기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발전기 전문 생산업체인 보국전기(대표:곽종보)는 최근 미국의 스탠포드 뉴웨이저사와 국내·외 시장에서 전략적 영업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영업제휴를 통해 15kW 이하 소용량 발전기와 몰드변압기는 보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2,500kW급 대용량은 스탠포드 뉴웨이저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이번 제휴는 취약 부문을 상호 보완할 수 있어 국내시장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국전기 박기영 부사장은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제품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는 물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수월해져 매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탠포드 뉴웨이저사는 발전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및 매출, 생산량 부문에서 세계 제1의 회사이다.

극동전선, 카테고리 6급 UTP 케이블 개발 성공

극동전선(대표:최병철)은 5월 26일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극동-허벨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신기술에 입각한 카테고리 6급의 UTP 케이블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주요 건설업체를 비롯 정부투자기관, 관공서, 엔지니어링업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최근 주거용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른 기술동향도 소개됐다.

극동전선과 미국 허벨사와의 기술세미나는 지난 '97년 마케팅 협력을 체결한 후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카테고리 5케이블 관련, 두 번째는 카테고리 5E케이블 개발 관련 발표를 한 바 있다.

최병철 극동전선사장은 이번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에 관련업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난 4년간 기술축적을 해온 결과 LAN케이블 부문의 해외 우수 규격 인증과 국내 처음으로 KS, GQ 마크를 획득하는 결실을 얻게 됐다"며 참석자들에게 성원을 부탁했다.

또 세미나 강사로 나온 허벨 프레스미스의 테크니컬 서비스 스페셜리스트인 DAN L. 보네만씨는 "제조설비, 검사설비를 완벽히 갖춰놓고 카테고리6급 UTP케이블을 생산하게 된 극동측과 허벨 접촉 자재간에서 탄생한 품질우수성을 바탕으로 통합배선시스템을 하나로 제공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로산업, 선박용전선 특허 획득

진로산업(대표 : 주상훈)은 선박용 전선의 제조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성도료로 도장된 선박용 전선 및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진로산업이 이번에 획득한 특허는 기존 선박용 전선에서 아연도칠선 편조물이 PVC자켓 피복제와 용착되어 편조물의 제거가 쉽지 않아 박리용 페트 필름을 삽입해야 하던 것을 밀착성과 탈피성이 우수한 기능성 도료를 개발, 선박용 전선의 제조공정

을 단축하고 배선작업시 외상을 효과적으로 탈피할 수 있게 한다.

진로측은 이번 선박용 전선 기능성 도료의 특허 획득으로 하반기 매출 목표인 2,2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로는 올 1/4분기동안 초고속망 구축사업확대에 따른 광통신케이블의 매출증대와 조선경기활황에 힘입어 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